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6면
태풍 '바비' 북상
농업 피해 예방 조치주력

전주매일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음 7월 8일) 제260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고발"

전주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시경 합동대책반 구성
내달 6일까지 1200여곳 점검… 이행업소엔 인센티브

코로나19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전주시가 감염 위험이 높은데도 영업장 문을 열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위험시설을 고발키로 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장을 폐쇄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원석 전주완산경찰서장, 한도연 전주덕진경찰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봉쇄하기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2주간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고위험시설 시경 합동대책반을 운영해서 전주지역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하면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시 공무원과 경찰 합동으로 총 357명의 고위험시설 시경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서 가동키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1조당 2~4명씩 7개반 150개 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시경합동대책반은 이 기간 동안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방문판매업소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03개소의 영업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현장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도 및 고발예정임을 통보하고, 이후 또다시 적발되면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위생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하지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해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가 원할 경우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의 희망근로자로 우선 채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고위험시설 외에도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학원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석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이날 "전주시민의 안전과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선제적으로 경찰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도연 전주덕진경찰서장도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과 행정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나 세력에 대해서는 결단코 관용은 없다"라며 "코로나19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이어 나온 가운데, 25일 김승수(가운데) 전주시장이 관내 경찰서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지역내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시·경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코로나 직격탄 맞은 '체육행사'

'펜싱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등 줄줄이 연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체육대회 준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도내에서 예정됐던 각종 체육행사도 직격탄을 맞았다.

먼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익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0 펜싱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가 연기됐고, 26일 전주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대통령기 볼링대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또한 다음달 3일 계획됐던 제28회 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는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이밖에도 검도대회와 족구대회, 배구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등도 대회 개최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만큼 종목단체 관계자 등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체육회도 도민들과 체육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태풍 '바비' 북상… 전북 영향권

도내 전역 강수 · 강풍 주의

전북도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라 전라북도 재해대책본부 1단계를 24일 오후 5시 30분부로 가동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태풍 '바비'의 예상 진로, 위험영향범위, 과거 피해내역 등을 공유하고 각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해 피해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8호 태풍 '바비'는 한반도 남쪽 고수온 해역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급격하게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전북도는 태풍의 위험반원인 오른편에 들게 되어 태풍이 몰고오는 강풍의 영향을 직접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의 북상에 따라 송하진 도지사는 시군 등과 함께 재해위험지역, 농축수산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강풍에 대비하여 선박·어망 등 수산시설 및 항만시설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옥외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피해예방 사전조치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저수지·댐 저류량은 만수 기준 60%까지 사전방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 월류·붕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방조치 등도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간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졌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관할 지역과 소관시설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 조치들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해달라"며 "강풍 시 해안가 높은 파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태풍 상륙 시 가급적 외부출입을 자제하는 등 국민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 거주 50대 추가 확진… 전북 77번째

서울 송파 확진자 2차례 접촉

전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 19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25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77번 확진자 A씨(50대 남성·전주 거주)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송파 197번 확진자와 사업상 2차례 접촉했다.

4개월 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0일부터 열감, 근육통,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이 발현됐다. A씨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전주 소재 회사와 자택에 머물렀고 점심시간에는 식당과 커피숍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8시에는 익산역을 출발해 수서역을 거쳐 서울 자택으로 이동했다. 21일과 22일에는 서울 소재 한 병원을 찾았고 서울 자택에 머물다가 23일 전주로 돌아왔다.

24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오후 7시 30분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전북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휴대폰 위치추적과 카드사용내역, CCTV 확인을 통해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유호상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